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우리들의 자랑

(약 1:9-11)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흠여져야 했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함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여서 온다는 진리와 함께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약 1:9-10).

야고보는 교회 안에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돈이 무엇이기에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곧 힘이고 이런 힘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돈은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너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돈은 없지만 더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부자들이었고, 다윗, 솔로몬, 보아스, 욥과 같은 사람도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는 복음의 열매로서 가장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도 아니며 더욱이 물질이 행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딤후 6:10).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면 그 돈은 선한 것이요 돈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한다면 그 돈은 악한 것이 됩니다. 세상의 돈이 불신자들에게 들어가면 그것은 오직 자기의 쾌락과 불의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

사도 바울은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자기가 누리는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대 행복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복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약 1:9).

비록 가난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 인하여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반면 부한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풀의 꽃과 같이 쉽게 지나가는 것을 알고 낮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3-4).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풍부한 가운데서나 빈궁에 처할 때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Our Pride

(James 1:9-11)

James the Apostle taught perseverance to the Jewish diaspora scattered among the nations, no matter how difficult their lives were because they believed in Jesus Christ. He started the beginning of the letter with the truth of which God's blessings would come with the wrapping of hardship that was wrapped.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s ought to take pride in their high position. But the rich should take pride in their humiliation-since they will pass away like a wild flower" (James' 1:9-10).

It seems to be clear that James was worried about a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church. What does money mean to us? Why does it become the absolute standard of life in the world as well as in the church? The reason why is that many people believe that money is power and that they are happy when they have this power. But that is a wrong idea. In any degree, we can see some people who live their life very unhappily even though they have very much mone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enjoy the bliss and live their life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much money.

The economical blessing is clearly one of the God's blessings. The ancestors of faith, Abraham, Isaac, and Jacob were rich, and David, Solomon, Boaz, and Job were blessed in a material way. Economical wealth is not decisive as the fruit of the Gospel and is not as important as the blessing that is given by God. Moreover, material is not essential for happiness.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 Some people, eager for money, have wandered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griefs" (1 Tim 6:10).

Money is not goodness and evil. If we spend lots of money for goodness, that is goodness, and if we spend money for evil, that is evil. If worldly money is used by unbelievers, it will be used for their pleasure and injustice, and will be a tool of evil to make many people unhappy.

"I know wha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Phil 4:12).

The Apostle, Paul said that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the happiness that we enjoy has no relation with it. This is the absolute happiness that the Bible s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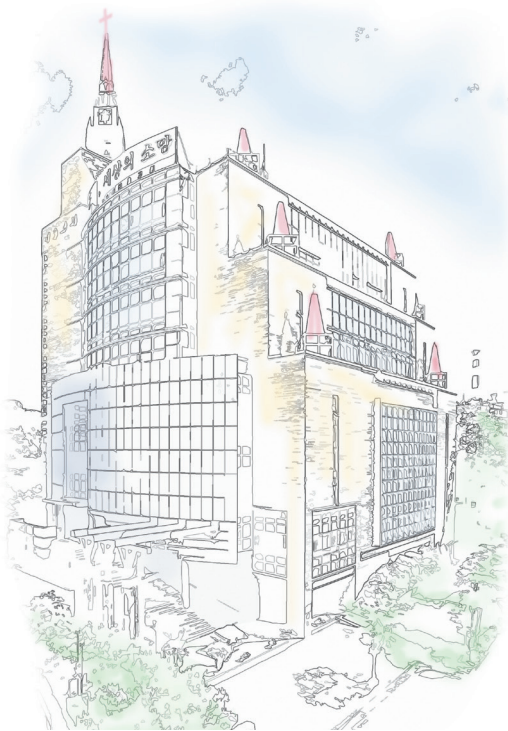
"Believers in humble circumstances ought to take pride in their high position" (James 1:9).

Even the poor take pride in their high position that they have in Jesus Christ. While the rich should lower themselves by knowing that their possession is like flowers that fade easily and wither grass.

My beloved Christians,
"Trust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Take delight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Psalms 37:3-4).

Psalms requested that we should trust the LORD, do good, and enjoy safe pasture, and take delight in the LORD.

Whether you are rich or poor, by living your life for the glory of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the peopl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6 흥해작전 개전 임박

주제 :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
기간 : 6. 6(월) ~ 6. 25(토) 오전 5시

2016년 흥해작전 발대식이 다음주 일 찬양예배 시에 진행된다. 주제는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합 3:2)이며, 기간은 6월 6일(월)부터 6월 25일(토)까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이다.

원거리 교구의 성도들은 각 다락방별로 모닝콜과 카풀을 이용하여 서로 참석을 독려하기 바란다.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7번 이상 출석하여 2층 안내석에서 출석 스탬프를 확인 받아 25일 제출하면 출석상을 준다. 흥해작전 기간 동안 전교인이 참여하는 특별행사로 사행시(흥해작전), 오행시(진정한 부흥, RENEW), 은혜 간증문 쓰기를 시행하며, 교회학교에서는 백일장(산문, 사행시, 오행시), 그림 그리기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도 갖는다. 흥해작전 기간동안 금요기도회는 개인적으로 하며, 주일에는 5시30분에 새벽기도회로 모인다. 흥해작전을 마치고 곧바로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매일 아침 8층 만나홀에 간단한 아침식사가 준비된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기 바란다.

흥해작전 기도제목

-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흥해를 건너지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 우리에게 다음세대를 맡겨주신 주님!**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간절한 기도로 응답하시어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복음화된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흥해를 건널 수 있도록 새벽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TEL. (02) 558-1106 FAX.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여름철 목사복 착용

6월 1일부터 여름철 동안 우리교회는 모든 교역자들이 반팔 상의 목사복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정장을 대신한다. 교역자들은 반팔 목사복을 착용하고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남녀 선교회 월례회, 심방예배 등을 인도할 수 있다.

교구별 체육대회



8교구 체육대회



11교구 체육대회

이종운 원로 목사의 크리스찬의 신앙곡선

한국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II

(속 4:6)

1. 초대 교회 성장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위기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각자 고향과 옛생활 터전으로 돌아갔다. 이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고 저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근거한 개인주의 빠져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교회의 대형화를 한국교회의 위기로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개교회가 대형화 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개념을 상실한 채 개교회주의에 빠져 이웃교회나 약한 교회를 돌보지 않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개교회주의는 도시 내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웃 교회나 약한 교회를 형제 교회나 지체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적자생존의 철학이 목회자에게 뿌리내려 이웃교회를 철저히 대결 내지 적대감까지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

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교회는 무수히 증가하나 그 과정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에 대해 경제성장의 원리를 교회성장에까지 도입하므로 오늘의 한국 교회는 갖가지 열병에 신음하기에 이르렀다.

초대교회는 강조할 것을 강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적인 것을 크게 강조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천국복음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기 원했으며 정치적 자유와 세속적 권세를 얻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메시야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기대도 전혀 어긋난 각도에서 받아들였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서 아니라 행복추구를 위한 생활의 도구로 퇴위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정직히 시인해야 할 것이다. 구약성경에 가득 채워진 축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세상의 물량주의적 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실 메시야에 대한 예언이며 그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무서운 박해 아래 있었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마다 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다. 박해는 외형적인 위협과 고난을 통하여 오는 것이 상례이지만 내적으로 조용히 소리없이 오는 유혹도 피하기 힘든 박해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이다. 한국교회가 정치적 혹은 타종교로부터 박해가 왔더라면 차라리 목숨이라도 걸고 싸우겠지만 불행하게도 보이지 않는 내적 핍박 앞에서 오금을 못퍼는 것은 분명한 비극이다.

초대교회는 가견적인 주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얼마간 혼란에 빠졌다. 한국교회도 아직 보이는 신앙, 즉 종교적 신앙에 집착한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흐리게 하는 무서운 과오를 범할까 두렵다.

초대교회는 조직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질서를 위한 조직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었고 임의 분담을 위해 집사직과 장로직이 세워졌다. 이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움으로 교회를 치리하게 하였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회중의 복합성 내지 다양성 때문에 조직이 가져오는 병폐가 심각하다.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같은 계급을 매관매직하므로 교회성장에 기여케 한다는 슬픈 현실이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하자. 그러나 교회 직분에 대한 몰이해 내지는 모독하는 태도 역시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평안과 안일주의에 빠진 나머지 구조적 모순에 대하여는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미덕처럼 생각해 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간의 제도보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주 계속)

신천지의 이단성과 기만적 교회 침투 전략

순례자는 근래 심하게 한국의 기성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 3주간 집중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부)

신천지는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신천지 출판사에서 나온 "천국 비밀, 요한복음의 실상" 등 서적에는 '보혜사 이만희 저'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만희는 6,000년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요, 재림주요, 새 말씀의 아버지이며 신천지만 참된 교회라 주장하였기에 1995년에 우리 교단(예장 통합)에서 이단으로, 합동은 '신학적 비판가치가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기성(1999)과 고신(2005)에서도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여전히 그 세력이 줄지 않고 있다.

신천지는 새 하늘은 새 교회(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고 새 땅은 새 성도(알곡)라고 주장한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2)는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여 기성교회는 타작 마당인 '추수 밭'이고 기성교회의 교인들은 '쭉정이'이며 그 중에 일부 '알곡'도 '곳간'에 해당하는 신천지 증거장막성전(계15:5, 21:1)에 들어 와야 영생한다고 가르친다. 등록 교인들에게는 '축 영생'이라는 글을 써주기도 한다.

신천지는 기성교인들을 곳간으로 끌어 들이는



"추수꾼들은 새신자를 가장 하고 잠입하여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아서 왔다고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거나 하는 수법으로 접근한다"

"신천지의 핵심 포교 전략인 '교회 통째로 먹기'(일명 '산 옮기기')가 대형교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

것은 말세 때의 천국 추수꾼이라고 하고, 이를 감당하는 추수꾼을 천사라고 주장한다(마 13:38-39). 이들은 자신들이 신천지교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거짓말로 숨기고 비밀리에 교회에 침투하면서도, 그들의 거짓과 기만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마 7:15)와 비교하여 '양이 이리 옷을 입은 것'으로 합리화한다. '이리 옷'으로 비밀리에 위장하여 침투하는 거짓과 기만을 '뱀처럼 슬기로운 지혜'(마 10:16)라고 가증스럽게 교리화한 것이다.

한국교회 내부의 자정 및 각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여전히 활개를 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신천지의 핵심 포교 전략인 '교회 통째로 먹기'(일명 '산 옮기기')가 대형교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한국 교회 내에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습, 담임 목사 교체, 목

회자의 비리 부정, 목회자와 장로 간의 문제 등 같거나 분규를 겪는 교회들이 집중 표적이 된다는 사실은 정통교회의 건강함과 목회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은 특히 분열이 있는 교회에 침투해 마지막에는 기존 교인을 몰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먹는다고 한다.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15일 공동의회(잠정 연기)를 앞두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 몇 명이 교회를 활개치며 공동의회를 위해 부산에서 왔으며 실명과 직분을 밝히지 않고 왜 공동의회를 안 하느냐고 사무국과 1층 로비에서 고성으로 항의한 사실이 있었다. 옆의 사진은 5월 15일 교회 내 CCTV에 촬영된 사람으로 교역자거나 직원 등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물이다. 또한 최근에는 8층과 9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접근하고 명함을 돌리는 여자들도 있었다.

추수꾼들은 새신자를 가장하고 잠입하여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계시를 받아서 왔다고 하거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거나 하는 수법으로 접근한다고 하니 우리 교인들도 각별히 이단 잠입 및 활동에 유의하기 바란다.



2016 흥해작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윤명구 집사 (흥해작전 기획참모부)

제가 서울교회에 등록하고 첫 번째 맞는 흥해작전이 2000년 흥해작전이었으니까 올해 16년째가 됩니다. 그 당시 하필이면 군 대응어인 '작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흥해작전을 통해 국가와 민족, 가정과 개인, 그리고 교회의 문제 등 우리들 앞에 놓인 현안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작전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따라만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때가

현충일로부터 6.25전쟁 발발일 까지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20일 동안 주일, 평일 구분 없이 교구별 주력부대나 찬양대나 하면서 온통 기도와 말씀에만 매달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그 때는 목사님만 앞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매달려 주님 섬기기에만 전심을 다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때는 너무도 일사불란했습니다. 힘들어도 힘든지 몰랐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라놓으신 흥해를 모세와 함께 건너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기분이 이랬을 성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도 많은 부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이제는 흥해작전에서 주일이 제외되고 주력교구나 찬양대나 하며 매일 새벽 우리들이

일으켰던 복새통은 진짜 옛 추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는 정다웠던 교우들 간의 대화가 없어졌고 언쟁의 도가 높아만 감에 따라 질서조차 없어진 느낌입니다만 우리들은 서로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흥해작전의 주제는 "진정한 부흥(Renew)을 꿈꾸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주님만을 섬기며 애원했던 지난 10여년 전으로만 되돌아가도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주여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께 목 놓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교회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일꾼 양성 - 유치부

학부모 일일교사를 마치고



안성희 집사 (유치부)

유치부에서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들이 일일교사가 되어 자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는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세라 목사님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치부 교사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여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저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여 오랜 기간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오랜 시

간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거나 공과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좋다는 소리를 듣는 저도 때로 예배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산만한 아이들과 공과를 진행하는 교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마음 한구석엔 부모님들이 일일교사가 되어 유치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해 봄으로써 교사로 섬김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마음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일일교사들은 유치부 아이들을 큰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의 산만함을 포용하며 열심을 다해 지도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진심이 통했는지 평소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일교사들의 열심은 제가 유치부에서 오랫동안 반복되는 봉사 가운데 생겨난 매너리즘을 없애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유치부 어린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서울교회의 미래가 될 이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섬겨야겠다고...



교회주변 불법주차 금지

강남구청은 종교시설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의 증가로 교회주변의 불법 주·정차 견인에 관한 공문을 보내왔다.

성도들은 교회 주변에 이열주차, 보도주차, 횡단 보도, 교차로 등에 주차를 금하기 바란다.

살롬경로대학을 마치며

노년의 저희들에게...



최향봉 권사 (13교구)

올해 살롬경로대학 개강이 었 그제인 것 같았는데 벌써 종강 학과발표회(05/12)를 하면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살롬 경로대학 주보를 받아듣고 101호 실로 입실하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성의 길로 인도 하셨구나" 라는 감동과 함께 어느해 보다 가득 자리를 함께 한 동료들의 모습에서 한결 마음이 든든하고 따뜻해짐에 감사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살롬경로대학 주보에는 10주간의 진행계획과 교육내용, 침체된 영성을 일깨우는 알림란까지, 아름답고 정교하게 짜여진 내용에 감탄할 뿐이며 행하는 믿음으로 말없이 일상분란하게 움직이며 우리들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순간, 살롬경로대학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

릴 뿐입니다. 경로대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감동과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서명철 목사님! 자상하게 일정을 인도하시고 섬세한 부분까지 마음써 주시는 차도훈 장로님! 그리고 각 학과별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섬김의 본으로 저희들은 재미있고 행복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10주간의 다양한 특강은 특색 있고 내실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믿음을 통한 내면의 영적치유와 노년의 삶에 적합한 심폐소생술, 허리회춘, 웃음치료, 치매예방에 이르기까지 알찬 내용이어서 흡족했습니다. 분반활동으로 저는 중국어 회화반에서 양연평, 고은주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경건예배가 끝나면 어느새 따끈한 차와 다과를 준비하십니다.

보잘것 없는 노년의 저희들에게 이렇듯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생생한 특강으로 삶의 체험도 경험하게 하시고, 학습자료를 제공하시면서 열정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살피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허락하신 교회와 주님께 한없는 찬양과 영광을 올릴 뿐입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9일(취) 정수길목사 독일선교사-우크라이나 은혜와 진리신학교 독일분교-총회파송선교사 파송예배 설교를 한다. 6월2일(목) 북핵폐기운동본부발대식에서 인사의 말씀을 한다. 6월4일(토) 사랑의쌀운동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주일식당봉사 : 바울 선교회(5.29)

베드로 선교회(6.5)

■ 금주의 식사 제공 : 윤태욱 집사 박순복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6월 6일(월)부터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하박국 3:3)라는 주제로 시작하는 2016 흥해작전이 큰 응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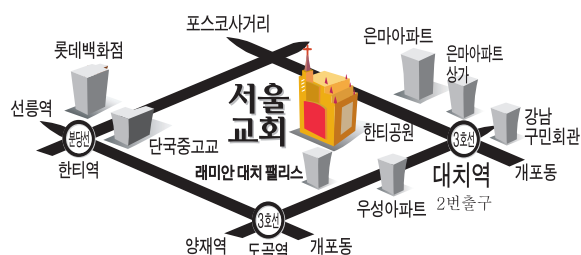
2. 더 많은 성도님들이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3. 방글라데시 비전트립(8월 8일-15일)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